

제 205 호

연중 제30주일
(전교 주일)

1976. 10. 24.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찬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론 ●



가을 유감(有感)

—구령사(救靈事)에 눈을 뜨자—

김 봉 희 신부

풍요의 계절. 조박한 대지위에 무르익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엇그제 봄인가 했더니 어느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들녘마다 황금물결, 누런 풍작속에 알알이 맺힌 보람, 모두가 하나같이 축복에 싸인 함박 미소 가득 머금은데도 그러나 난 웬지 이내 자꾸만 시름에 잠겨듭니다. 아마도 저도 몰래 영근(?) 가을의 슬픈 우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쁨도 영화도 물거품 같이 보람도 없이 걸어온 구진 생애 사라져 간 꿈이 야속해서 한숨짓는 탓일까?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인생의 황혼 겨울이 오면 대지 아닌 이몸에 싸늘한 죽음이.....

가을은 정녕 사색의 계절. 조용히 생활 되돌아 생각해보는 어쩌면 그 어느때 보다도 승연한 종교적 감회에 절로 젖어들 수 있는 가장 인간답고 고마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추수에 더욱 분주해지는 생계, 또 끝이 어 저정스런 겨우살이 준비도 서서히 해야 할 판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차디찬 내 생의 겨울에 얼어죽지 않게시리 이 복진 날 잠시 대비하심도 좋지 않으실까? 자칫 육(肉)의 풍요 속에 영(靈)이 매달라 시들지 않도록.

때마침, 자모이신 성교회가 풍성한 수확속에 살찌오르는 호시절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고, 그중에 오늘을 각별히 「전교주일」로 제정한 소이도 여기에 있지 않은지 저오기 고마움을 느낍니다. 사실이지 춘음(寸陰)같이 있다가 사라질 순간의 값, 그것이 정작 천국의 영주를 위한 경주의 순간이고 보면 아마도 필경 우린 어쩔 이 「전교」를 위해 갔다 가는 삶이라 해도 결코 과언만은 아닐상싶어 더욱 의미 깊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 전 생의 과업이 그실, 모든이가 아버지 하느님을 알아 모시고 그 뜻 좇아 더 깊고 고귀한 참 생명과 참 행복을 향하도록 고추 살고 또 일깨움이 아니겠습니까?

꽃도 나무도 인생도 교역되어 무상히 흐터지는 우수수(憂愁愁) 낙엽 가을, 가뻐 가는 생 잠시 붙잡고 교형내어, 다시 내일의 나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는 현재와 물질에만 너무 눈이 어두워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길을 향하지 못하는 가련한 자신, 영혼이 맹인된 「제 눈을 뜨게 해주십사」고 오늘 우리도 소리높여 불러봅시다. 저 복음 속 「데리고」 불쌍한 맹인의 하소처럼.

주여, 우리 모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사색의 계절, 축복의 가을에 당신의 손길, 그 은혜로우신 배려에 모두가 고개숙이며 감사지정을 쏟아 올릴 수 있도록!

야면. <장제 천주교회 주임신부>

□시대의 징표□



학생(學生) 문제

-3년새 도난 5배(모 여고)
3년전까지만해도 1년에 20여건이던 도난사건이 1백여건으로 늘어나.

-교내 폭행도 급증(모 남고)
주먹다짐에서 끝나던 싸움이 돌, 망치 등을 휘두르는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발전.

-여고생 피살(被殺)
밤 10시경 학교에서 과외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변을 당했는데 추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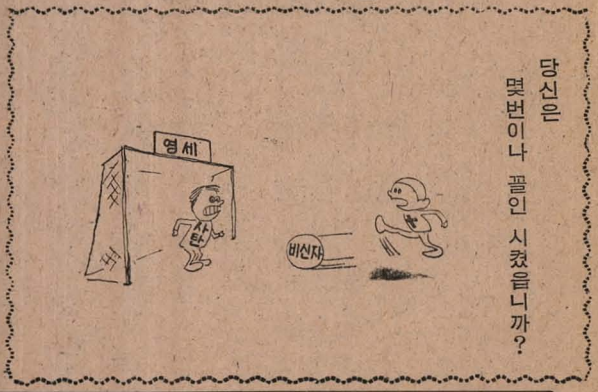
10월 19일자 D일보의 사회면에서 읽을 수 있는 학생들에 관한 기사와 타이틀과 그 줄거리들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의 젊은이들이 내일의 이 나라 이 사회의 주인 공이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자명한 법칙을 생각할 때, 신문이 보도된 학생들의 문제가 비록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할찌라도 우리 모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힘을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 교육 전반에 관한 것들은 그것을 교육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다. 힘드는 일은 남에게 시켜서 하겠다는 양반정신, 일체의 압제 밑에서의 고생을 생각해서라도 그저 어떻게든 뚫어주어야 한다고 믿는 관료사상, 6.25 동란의 혼란속에서 겪은 배고픔을 면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몫 켜어야한다는 배금(拜金) 정신, 한정된 일자리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느냐는 치열한 경쟁의식들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임시지옥>을 낳고, 그걸 해결하자고 <평준화>를 서두르고, 그러면서도 뒤편에서 말자고 몸부림을 치다보니 가방은 무거워지고 심장은 가벼워졌다. 곧 <인간>을 잃고 말았다.

결국 문제는, 머리 큰 사람보다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으로 오늘의 젊은이를 길러내야 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닌가 한다.

순정이 산책



루르드의 성모

韓 相 甲

작년 10월 로마에 간 우리 일행은 다른 사람들 처럼 성지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루르드를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기도드렸다. 우리의 기도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10월 20일 파리에서 하루 해를 보내고 밤 9시 50분 완행열차에 몸을 실으니 루르드까지의 직선거리 660여 Km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9시간 반만인 21일 아침 7시 15분, 우리는 루르드역에 내렸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찬란했고 따스했다. 우유파는 집을 찾아 빵 몇조각에 증발만한 컵으로 두잔씩 마시니 시장기가 가신다. 광장으로 향했다.

성모님이 발현하셨다는 동굴 앞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순례 봉사 사무실에 들려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열 배살의 가난했던 소녀 벨라멧다(BERNADETTE)가 만난 성모님 이야기가 한구말 녹음으로 들려 왔다.

「제가 처음 동굴에 간 것은 1958년 2월 1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다른 두 친구들과 나무를 주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물레 방앗간에 이르렀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물결이 가브(Gave)江과 다시 합쳐지는 곳을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내가 양말 한짝을 채 벗기도 전에 나는 돌풍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굴의 반대쪽인 풀밭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나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양말을 벗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같은 소리를 듣고 동굴을 쳐다보려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흰 옷 입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흰 옷에 흰 수건을 쓰고 푸른 띠를 두르고 양 발등에는 여인의 목주줄과 같은 색깔인 노랑 장미가 한 송이씩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눈을 비볐습니다.그 여인은 두 손에 쥐고 있던 목주를 들고 십자 성호를 그었습니다.나는 무릎을 꿇고 이 아름다운 여인의 면전에서 목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갑자기

그 여인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2월 18일 이 여인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이 곳에 와주겠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말고 다른 세상에서 너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을 약속한다.’

보름동안 그 여인은 몇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 ‘죄인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라.’

— ‘보속하라, 보속하라, 보속하라.’

— ‘샘물에 가서 마시고 씻어라.’

— ‘신부님들에게 가서 여기에 성당을 지으라고 말씀드려라.’

— ‘나는 사람들이 행렬지어 여기 오기를 원한다.’

...네번째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눈을 하늘로 향한채 두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가슴위에 모으면서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된 자 (Que soy era immaculada conception)>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레네 지방 방언으로 말하심)

루르드를 찾은 수많은 행렬은 기도의 행렬이었다. 그리고 온통 자기 자신을 하느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는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목발과 휠체어 행렬이었다. 동굴위에는 필요가 없어진 목발들이 수십개 걸려 있어 우리에게 무언의 말을 하고 있었다. 성당 안에는 감사의 말씀을 적은 대리석 판들이, 또 많은 것발과 훈장들이 봉헌되어 있었다.

1860년 한국에 들어와 전교하다가 1870년 로마에서 한국의 6대 주교로 성성된 리델 주교님의 이름으로 <성종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하세하나이다. 1876년>라고 박해받는 한국을 봉헌한 대리석 판도 볼 수 있었다.

벨라멧다 성녀께서 사시던 까쇼(LE CACHOT, 감방), 산상을 오르는 십자가의 길, 200여 휠체어가 따르는 장엄한 행렬과 성체강복을 끝으로 밤 7시 51분 기차로 다시 파리에 돌아 왔다.

기적을 낸다는 샘물을 조금 가져왔다. 몇분에게 나눠 드렸다. 은혜를 받은 분도 있는듯 보여진다.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다. 꼭 필요로 하는 분에게는 나눠드리겠다

□ 사람을 구합니다 □

가톨릭 시보를 배달하고 수금하는 일이 주된 일입니다.

야간 고등학교(男子) 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전주 시내 거주자로서 본당 신부님의 추천을 얻어 10월 27일 까지 교구 사무국으로 오세요.

-가톨릭 시보 전주지사 (3-5098)

★ 교우 여러분의 뜻을 책임지겠습니다 ★

전 일 양 복 점

(舊 맨디 양복점)

전 태 권(스테파노)

□오거리←→삼남극장중간(교사동 1가 175번지)

전화 ③ 9 4 6 5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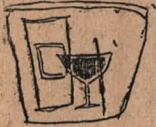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압(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장수
다가동 ③4342	정읍 2157	임실 261	고창
전동 ③2143	김제 45	부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양 지 쪽□



그리스도와 나 (2)

김 정 원 신부

부부간에는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다. 사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부부라면 생각이 같고, 감정이 같고, 뜻이 같을진대 어찌 닮지 않을수가 있단말인가. 일같은 마음의 표현이며, 거울이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생각과 감정과 뜻을 같이 하려고 애써 노력을 할 때, 자연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이 닮는다는 말은 일치라는 말이다. 내 자신의 그것과 「동일화」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세 1,26) 곧 다름 아닌 「신앙의 비약」이다. 진정 그리스도와의 「동일화」는 인간 편에서 하나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존재를 토대로한 하느님 편에서의 선물이며 은총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런 뜻에서 자기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소화 데레사는 영성의 냇가로서 그 설계를 다음과 같은 비유로써 썼다고 한다. 즉 「나는 미약하기 때문에 저 높은 산봉우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나 만일 누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면 능히 올라 갈 수가 있으리라.」 이 타자(他者)의 손이 바로 하느님의 인간 편에서 「비약의 나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한다.

신앙의 비약을 말하다 보니 그리스도와와의 일치가 좀 흐려진 것 같다. 사실은 같은 말이고, 같은 내용이다.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를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생활의 세세한 점에까지, 깊은 「데리케이트」한 점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거기서 시작하고, 수수되고, 교화(交歡)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신비적인 일치라고까지 말할 수 없으리라. (신비적인 냇가의 그것과는 무관한 것임) 「내가 사는 것이든지 죽는 것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로마 14,8)고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 하였다. 사실 이것은 정작 그리스도인 생활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생」과 「사」의 그 중간의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와의 생활적인 체험은 단순한 「아가페」적인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피로」적인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써 그리스도와와의 사랑을 간직하기보다는 이것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와 애정적인 사랑(피로)을 느끼고 체험해야 할 것이다.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사랑 자체가신 그리스도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 자신의 도전이며, 도발이며, 혁명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자자의 신비체는 사랑의 밀착관계를 뜻한다. 이 밀착의 반대는 이탈이다. 이 이탈은 공동체(신비체)에 있어서 커다란 중상이다. 이탈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망그러든다. 이것이 「신비체」란 공동체의 의식이다.

진정 그리스도와와의 이탈의 생활이 얼마나 괴롭고, 쓰라린 생활인지는 뼈저리게 느껴 볼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와와의 일치를 회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 작가는 그만큼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읊었다. 모름지기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생활의 후한을 느끼는 법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회개 소리」 「메타노이아」, 그것은 진정 자기 생애의 도전이 되어야 하며, 혁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나」는 자기 생활에서 언제나 「신앙의 비약」 안에서 「일치」를 놓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요심이 (169)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원준(야고버)

삼품화학 하이퐁, 하이원 고농도 중성세제의 용도

1. 살균 소독.....야채, 과일, 생선, 식기, 냉장고, 조리기구등
 2. 표백 살균.....행주, 걸레, 기저귀, 흰와이샤스, 내의, 흡이불
 3. 세척.....옷에 묻은 잉크, 과즙, 피, 슬등의 얼룩, 세차, 기계공업등
- 연락처: 전동성당 옆 골목(2-7249)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원장 김 창 호(클레멘스)
□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520번지
전화 4134
(남원 천주교회로 연락해도 됩니다)

한국(流)온수 온돌 연탄보일러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염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
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③ 4874

범창규(베드루)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② 1665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② 658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제 4 지 구 각 분 당 소 식

※공지사항※

1. 감 덕창(아우구스띠노) 부제 서품(오늘 공식미사, 중앙성당)
2. 권 영교 신부님 은경축(10월 26일(화), 둔울동 성당, 축하미사 오후 2시, 축하연 오후 3시)
3. 지정환 신부님 병환(교구 공문 76-36호)
지 신부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윤정이 204호 참조)
4. 제 27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10월 19일-22일)에 대전교구 황민성 주교님 이하 11분의 신부님, 1분의 수녀님, 2분의 평신도가 특별히 참석하셨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좌 보 사 좌 신부 이 중 원
 도 회 장 이 상 용

1. *감 덕창 부제 서품식: 공식미사
 ◎ 많은 기도 바랍니다.
 11.29 태평동
2. 애령회 소식: 하 경철 상가(10,000원 회사)
 ◎ 감사 합니다.

28일-태평동, 29일-진북동, 기타.
 ※ 신임 시간: 저녁 미사 후 (해당되는 날자에 빠짐 없이 사무실에 신임해 주세요.)
 29일까지 빠진 가정은 신부님과 사도회 임원이 방문하겠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첫 영성체 15명: 오늘 공식미사에 ◎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 임 신부 공 아 영
 사 도 회 장 박 중 용

1. 히야신스 공개 Cell: 오늘 오후 2시
2. 반상회(중노 1가): 봉송야반(오모니카)-25일, 진달래반(김마리아)-26일, 채송화반(소모니카)-27일, 맨드라미반(양베로니카)-29일.
3. 제 1단계 영성체: 30일(토) 오후 2시
 ◎ 대상-현재 예비자 교리를 받고 계신 분.
4. 환자 병성체: 27일(수) 오후 ※ 환자 있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십시오.

(서학동) 전화 ②2776 주 임 신부 오 현 택
 사 도 회 장 박 장 준

1. 견진 성사: 10월 31일 (연중 제31주일) 시간-오전 10시 미사, 주교님 집전. ◎ 견진 대상자는 충분한 준비로 임하시기 바람.
2. 견진자 교리: 26일(화)~30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 특별 교리이오니 대상자는 참석 바람.
3. □초대 □은 31일(일) 주교님, 은퇴 신부님, 시내 신부님, 사도회 임원님과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와 환영을 바랍니다.
4. 도장 공사 헌금: 장 남준(3만원), 김 정수(1만원), 정 양중, 정 시진, 문 기택(각 5천원), 유 발용, 선 옥순, 김 영자, 김 순태, 방 말레, 김 순기 (각 2천원), 주 형균(1천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 임 신부 박 중 근
 사 도 회 장 김 용 환

1. 봉헌금(교무금)을 10월 말까지 사도회에 신임바람.
 ※ 말일까지 미 신임자는 사도회 임원이 가정방문하여 신임을 받게됩니다. (실일조의 정신으로 양심껏 하세요.)
2. 76년(작년 분) 교무금을 속히 완납바랍니다.
3. 성당 신축 성금: 미 신임하신 분은 10월말까지 신임바람. (작년도 교무금에 35% 이상)
 ◎ 신임하신 분은 매월 잊지 말고 납부해 주세요.
 □ 지난 주 신임: 장 귀자(4천원), 박 오목(3만원), 김 복실(2만원), 김 영술, 박 바다(각 1만원),
 계 74,000원, 누계 4,461,5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 도 회 장 유 석 준

1. 산상 야의 미사: 다음 주일 12시 정각, 남고산 가족 동반(학생,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함께)
2. 글라라 형제회: 다음 주일 남고산에서 미사 후
3. 주일 특별 진료: 부속병원 내과 과장(성당 사무실에 서)
4. 축일 및 행사 카렌다 제작 예고 (교우 전화 및 상업처 연락 요망)
 ◆ 10월은 교무금 신임의 달 ◆
5. 교우 피정: 11월 13일~14일, 주관-사도회, 장소-가톨릭 센터.

(복자) 전화 ②5238 주 임 신부 김 중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1. 봉헌금(교무금) 신임 일시: 25일-다가동, 26일-중양동, 고사동, 화산동. 27일-효자동, 완산동.

※ 각 분 당의 금주 간 소 식 과 지 난 주 일 봉 헌 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부 수 신 태 음	평일 미사에 참례 합니다.	4,695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화	L·M 공개회합	93,895원
		유아세례 주일학교 가을 소풍 학생회 월례회 매주일 공식미사 강론 후 성가연습 청년회 애령회	5,945원 8,070원 4,740원 18,245원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사도회	29,350원 7,885원
제 2 지구	대 둔 울 월 명 중 합	유아 세례 29일부터 사목교사 연수회	6,250원	제 4 지구	중 앙 노 송 동 덕 부 전 서 학 동	★ 강덕창 부제 서품식	88,231원
		카리따스 월례회 신축 성당 축하미사 꾸리아 월례회	63,240원 28,690원 13,075원 14,690원			히야신스 공개 cell 봉헌금(교무금)을 완납합니다. 첫 영성체 다음주 견진성사 다음주 산상 야의미사	38,790원 23,275원 30,295원 25,486원 128,09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정지 순례 주일 미사시간 변경	4,890원 17,705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성모회 총회 장수지역 회장단 회의 반회합	14,005원 5,450원 4,025원
		연령회 월례회	16,475원			냉담자 및 행방 불명자 찾기운동 ★ 축 분 당 신 부 영 명 축 일 (28일)	17,965원 원 원